

책 읽어주기 활동이 시각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Storytelling for the Visually Impaired Children

육 근 해(Keun-Hae Youk)*

목 차

1. 서론	3. 연구방법
2. 문헌 고찰	3.1 연구의 배경
2.1 비장애아동의 책읽어주기 활동의 중요성	3.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2.2 시각장애아동의 책읽어주기 활동의 중요성	3.3 분석방법과 제한점
2.3 시각장애아동의 독서매체 및 접자 도서관 현황	4. 분석 결과
	4.1 근거자료의 범주화
	4.2 축코딩
	4.3 선택 코딩
	5. 결론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책 읽어주기 활동이 시각장애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 책을 읽어준 선생님, 도서관 사서 등과 심층면담을 하였고, 근거이론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책 읽어주기 활동은 시각장애아동의 독서 흥미와 학습 능력, 사회적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at which behavior is affected by the storytelling for the visually impaired children. I had a depth interview with the children and their parents who were participated in the storytelling class, the storytelling teacher and the librarian. And then the material was analysed by the grounded theory.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storytelling is very helpful for the visually impaired children to improve their interest in reading, learning ability and their sociality.

키워드: 책 읽어주기, 시각장애아동, 근거이론, 장애인서비스, 점자도서관

Storytelling, Visually Impaired Children, Grounded Theory, Disabled Services, Braille Library

* 한국점자도서관장, 경기대학교 박사과정(youk@kbl.or.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2월 15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3월 14일

1. 서론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회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박갑수(2000)는 인간이 세계를 인식하고 수용하는 여러 가지 상징체계 중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언어이고,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세계를 인식하여 기억하고, 회상하며, 해석하고, 재창조하는 등 다양한 사고 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어느 시대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나 인간에게 있어 언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처럼 언어가 중요한 만큼 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인 언어교육도 중요하다.

언어교육의 영역에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있는데 이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한다. 그 중에서도 읽기는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 방법의 하나로, 문자화된 어휘나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이연섭 1987). 하지만 읽기를 배우는 시기는 아동에 따라 다르다. 최근 북스타트 운동에서처럼 부모가 관심을 갖고 아기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책을 가지고 놀며 자연스럽게 책읽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부모의 무관심 또는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초등학교에 가서야 책 읽기를 배우는 아동도 있다. 모든 아동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읽기를 늦게 배운 아동은 일찍 배운 아동보다 아무래도 책 읽기가 서툴기 마련이다. 이런 아동들은 책 읽기를 기피하게 되고 이것은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 특히 시각장애아동의 책 읽기 활동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시각장애아동이 읽을 책이 부족하고, 도서관에서의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도 전무하며 시각장애아동의 읽기 능력이 부족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김은희(1999)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아동의 읽기능력은 비장애아동에 비해 읽기 속도가 2~3배 늦는다고 한다. 이는 점자가 묵자보다 훨씬 복잡하며, 묵자보다 구별이 어렵고 서로 쉽게 혼동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시각장애아동은 점자의 복잡성에서 오는 혼란으로 인해 점자 읽기 속도가 늦어질 뿐 아니라 책 읽을 기회도 적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연계해서까지도 계속되는 학습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아동의 책 읽기 활동은 비장애아동보다 더욱 필요한 것이다. 더 많은 책읽기를 통해 점자 해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부진을 극복하며, 그들의 사고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다. 또한 책 읽기 활동은 자칫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 되기 쉬운 시각장애아동을 긍정적 태도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배양하는 인격형성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책 읽어주기 활동이 시각장애아동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전제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탐색적인 질적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 문헌 고찰

2.1 비장애아동의 책읽어주기 활동의 중요성

책 읽어주기 활동은 아동에게 아주 중요하다. 책 읽어주는 아주 오래 전부터 가정과 유아교육현장에서 어린이들에게 동화를 전달하기 위해 활용하던 방법이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

어주는 것은 가정과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송서영 2004). 유아들은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깊은 감동을 받게 되고 또한 문학에 대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문학작품을 통한 간접체험을 함으로써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되며, 문학작품은 유아들에게 삶의 방향도 찾도록 바람직한 영향을 주어 유아의 심신발달에 보다 나은 변화를 가져다준다(이상금, 장영희 1996).

Trelease(1995)는 부모나 선생님이 직접 책을 읽어주었을 때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첫째, 아이들이 그 책에 대한 흥미를 갖게 된다. 책은 무엇보다도 읽는 아이의 흥미가 유발되어야 한다. 책을 읽게 하거나 책을 사주기만 하고 그대로 두면 그 날 이후에는 흥미를 갖지 않게 된다.

둘째, 책을 읽어 가는 동안 아이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크게 발동한다. 아이가 혼자 책을 읽으면 모르는 부분도 많고 집중하기도 어려워 책 내용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고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에 이끌리게 된다. 그리고 아이들의 본능인 호기심과 상상력이 풍부하게 발동하여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된다.

셋째, 아이들이 차츰 책과 가까이 하게 된다. 선생님이 매일 재미있는 책을 잠깐씩이라도 읽어주면 아이들의 태도는 금방 달라진다. 아이들은 금방 선생님을 따라서 책을 가까이 하게 된다.

넷째, 언어 표현력과 사고력이 크게 늘어난다. 언어의 기본은 듣거나 말하는 것 그리고 쓰거나 읽는 것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능력

은 끊임없이 새로운 표현을 접하게 됨으로써 가능하다. 새로운 표현은 책을 자주 읽으면 저절로 익혀진다. 그리고 책을 많이 읽는 아이들은 사고력이 다양해지고 또한 깊어진다. 이것은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에 이끌려 그 내용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집중력이 생긴다. 학습은 우선 잘 듣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숙달시켜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서 그 내용에 이끌리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주 재미있는 책을 읽어주면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에 빠져들고 이것이 반복되는 동안 집중하는 습관이 저절로 길러진다.

여섯째, 아이들의 정서가 풍부해지고 성격이 좋아진다. TV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좋은 책에 흥미를 느끼고 위안으로 삼아 정서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송서영(2004)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표 1>에서와 같이 책 읽어주기 활동이 비장애아동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책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들의 책 읽기 능력과, 책 읽기 흥미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화에서 나오는 내용과 관련된 활동도 아동의 언어표현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시각장애아동의 책읽어주기 활동의 중요성

대개 일반 유아들은 생후 4주에서 6주 사이에 시각을 자극하여 이것저것 보기 시작한다. 시각을 제일 먼저 사용하게 되며 이것은 일생을 통하여 볼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표 1〉 선행연구 비교

	송서영	송은경	박경호	조경숙, 서순영
연구대상	초등학교 2학년 읽기능력이 평균 미만 또는 하수준의 11명	초등학교 3학년 2학급	유아원 원아 14명	초등 5학년 2개반 실험반, 1개반 통제반
연구절차	일 40분씩 총 22차 수업 진행	8주간 총 16차	6주, 10회	주2회 40분 17주간
연구내용	독해력과 읽기 태도 변화	언어이해력에 영향 변화	읽기 능력 및 책에 대한 흥미 변화	읽기 흥미 및 어휘 습득 변화
결과	독서 흥미, 독서 습관에 긍정적 영향, 읽기 성취도 향상	듣기·읽기 이해력의 향상에 영향	읽기 능력에 영향	읽기 흥미 향상, 어휘력 향상, 언어 능력 향상

시각을 사용함으로써 먼거리에서도 사물을 지각하는 것을 배우고 사물 전체를 볼 수 있다. 결국 사물을 다루고 탐색한다는 것은 유아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기능이나 의미를 알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은 시각장애유아보다 비장애 유아가 더 빨리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조미경 2003).

문자에 있어서도 시각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 간에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문자 언어 사회에 살고 있어 비장애 유아들은 문자와 관련된 활동을 접할 기회가 많다. 실생활 속에서 읽기, 쓰기 활동을 할 기회가 많고, 주위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자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Goodman 1984).

반면 시각장애 유아는 적합한 자료의 부족으로 문자 환경에 접근하기 어렵고 환경을 조작할 수 없으므로 문자를 학습하는 데 한계를 갖지 않을 수 없다(Warren 1994). 시각장애 유아에게는 비장애유아보다도 더욱 문자 언어에 관심을 갖게 하고, 문자 언어의 이해와 함께 독서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다(조미경 2003).

이처럼 시각장애 아동은 유아에서부터 비장애 아동에 비해 사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문자 학습 능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장애보다 더 빈번하게 문자를 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책도 부족하고 독서프로그램도 전무하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아동의 독서는 카세트테이프에 의존하거나 어머니가 읽어주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아동의 독서 흥미를 높이고, 어휘력이나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 읽어주기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3 시각장애아동의 독서매체 및 점자도서관 현황

시각장애아동의 독서 매체로는 크게 점자도서, 카세트테이프 도서, CD로 제작한 오디오 도서, 목점자혼용도서, 촉각도서, 점자그림라벨 도서 등이 있다. 이 중 점자도서는 주로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작되고 주로 동화나 위인전 등에 치우쳐 있으며, 그 분량도 매우 적어 시각장애아동에게 있어 적합한 읽을거리가 못되고 있다(김은희 1999). 카세트테이프 도서와 오디오 CD 도서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일부 점자도서관에서도 제작하고 있어 시각장애 아동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도 충

분한 독서를 할 만큼 되지 않고, 독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나가버리고 마는 것이라 책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시각장애아동에게는 점자도서, 카세트테이프, 오디오 CD 도서 등보다 목점자혼용도서, 촉각도서, 점자그림라벨도서가 적합한 도서이다. 현은자 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장애아동의 부모와 교사들은 시각장애아동들에게 그림책을 이용한 수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 때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그림책 읽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림책은 목점자혼용도서로 제작되어야 하고 아동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을 간단하게 다루어야 하며, 시력 이외의 촉각, 청각, 후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림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목점자 혼용도서로 제작되어야 하는 이유는 비장애 부모나 형제가 시각장애 아동과 함께 책을 읽기 위해서이다. 외국에서도 시각장애아동을 위해 개발되는 그림책은 보통 목자와 점자 그리고 촉각 그림과 일반 그림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장애 부모는 글자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시각장애 자녀는 점자나 촉각 그림을 만지면서 그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조미경 2003). 점자그림라벨도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목점자혼용도서의 일종이다. 일반 그림책에 점자 라벨을 붙여서 그림의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책의 내용의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점자도서관은 2003년 전국적으로 사립 점자도서관 35개관과 공공도서관 장애인열람실 40여개관이 개관되어 있다. 공공도서관 장애인열람실은 주로 자료 열람만을 제공하고, 사립 점자도서관은 자료 열람 외에 자료의 제

작과 참고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의 자료 현황은 2003년 8월 촉각도서는 1개관만 소장하고 있었고, 목점자혼용도서는 3개관이 소장하고 있었으나 2개관은 보유량이 많지 않았으며 1개관만이 209종을 보유하고 있었다(육근해 2004). 이 통계는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기적의 어린이 도서관을 전국적으로 건축하고 전국 500여개의 공공도서관이 어린이열람실을 갖추고 있지만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은 그 어느 곳에도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3. 연구방법

3.1 연구의 배경

이 연구의 배경은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시각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들려주고 들어주는 그림책방”의 책 읽어주기 활동이다. 이것은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독서프로그램으로서 한국점자도서관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서울에 한정된 프로그램이었다. 따라서 이 책 읽어주기 활동의 참여자는 서울맹학교 또는 한빛맹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었다. 책 읽어주기 활동은 지난해 3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8회에 걸쳐 수행되었다. 참가 대상은 아동의 연령차가 너무 크면 책 내용의 이해에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6세에서 10세의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책 읽어주기 활동을 추진한 한국점자도서관은 서울 암사동에 소재하고 있어 서울 중심부

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와도 상당한 거리에 있어 참여 아동들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여 교통편의를 도모하였다. 연중 때를 가리지 않고 서울시내 토요일은 교통이 복잡하여 도서관을 왕래하는데 편도만도 1시간 반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3.2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자료 수집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한 전체 아동은 22명이었으나 이 중 2번 이하 참여한 아동 9명을 제외하면 실제 참여한 아동은 13명이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 참여자 선정은 실제 꾸준히 참여한 아동 13명을 대상으로 참여한 아동과 그 부모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연구자는 선정한 참여 아동 어머니들과 책 읽어주기 활동을 1회, 5회, 마지막회가 끝난 후 등 3회에 걸쳐 심층적인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아동들과도 면담을 하였고, 책 읽어주기 활동을 수행한 선생님과 담당 사서와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일지도 관찰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서 “시각장애아동의 평소 독서태도와 흥미는 어느 정도였나?”,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와 결과는 무엇인가?”, “아동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등의 질문을 하였다.

3.3 분석방법과 제한점

자료 분석은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스트라우스와 코빈(Strauss and Corbin 2001)이 제시한 근거이론으로 하였다. 근거 이론은 이론적 관련성을 가진 개념들을 근거로 하여 이론적 표

본을 추출하고 분석하는 동안 새로운 차원,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자료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 자료와 수집과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며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단계를 거쳐서 새로운 이론을 생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개방코딩 단계에서의 이론적 표본추출은 잠재적으로 관련된 범주들을 가능하면 많이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표본추출은 개방적으로 하였다. 축코딩은 그 목적이 개방코딩에서 발견된 범주들과 하위범주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시키고 그것들과 관련하여 변화과정의 증거를 일차적 자료에서 찾는 것으로 이들의 관계를 발견하고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선택코딩은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범주들을 연관시키고, 정리, 통합하여 하나의 이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2개의 맹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참여 아동 가운데 꾸준히 참여한 13명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심층 분석하였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

4. 분석 결과

4.1 근거자료의 범주화

분석 결과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자료 부족, 어휘력 부족, 발표력 부족 등 59개의 개념들이 도출되었다. 이 개념들을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 전무, 독서 불편 등 20개의 범주로 분류하였고, 이 20개의 하위범주는 10개의 상위범주로 도출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시각장애아동의 책 읽어주기 활동 과정 개념의 범주화 : 개방코딩

개 념	하위범주	상위범주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자료 부족, 장애인정책 전무, 점자도서관의 우편대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독서 환경 열악	시각장애아동독서 환경 부족
공공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자료나 프로그램이 없음, 학교도서관도 별다른 독서 프로그램이 없다	문화 교육 프로그램 전무	
카세트테이프 독서, 어머니가 읽어줌, 흥미 부족	독서 흥미 낮음	독서 부족
점자 잘 못 읽음	점자 해독 미숙	
조금씩 읽고 이해함, 이해력 떨어짐	이해력 미숙	어휘력 부족
상상력 부족, 생각 부족	상상력 부족	
발표력 부족, 표현력 부족	표현력 미숙	
다른 사람이 책 읽어주는 것 싫어함	사회성 부족	부정적 태도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	집중력 부족	
점자도서관이라는 곳을 알게 됨, 책 읽어주는 활동에 처음 참여함, 책 읽어주는 활동을 통해 변화를 기대함	기대	기대와 갈등
점자도서관이 너무 멀다, 점자도서관의 시설이 열악하다	실망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참여, 점자라벨그림책 처음 접함	끈기	끈기와 적응
다른 친구나 누나, 동생들과 어울리게 됨, 어머니 외의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만남,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나 사서에게 쉽게 말을 잘 걸지 않음	새로운 만남	
책 내용의 모르는 단어에 대한 질문이 많아짐	질문 증가	
점자라벨그림책을 통해 점자를 자주 만지게 됨, 목자 제목과 점자 제목을 직접 읽으려 함, 자신이 직접 도서관 서가에서 책을 골라 보려 함, 서로 선택한 책을 갖고 싸움	자주적 태도	
책 내용을 누나, 아빠 등에게 이야기 함, 마법 주문을 친구들과 외움, 귀가 차량에서 들은 이야기를 함, 생각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함, 도서관에 오는 날을 기다림, 도서관 오는 날은 아침부터 설레임, 더 자주 했으면 합니다, 1시간은 너무 짧다	적극적 태도	행동의 변화
책을 아주 좋아함, 책을 많이 읽어달라고 조름, 매일 저녁 읽어달라고 함, 혼자서도 동화를 끝까지 읽음	독서량 증가	독서 흥미 향상
언어 소통이 부드러워짐, 많은 도움이 되었음, 상황을 이어주는 단어 등을 이해할 수 있음, 질문이 많아짐, 간단한 문장을 만지며 읽음,	어휘력 향상	학습 능력 향상

목자 제목과 접자 제목을 비교하며 읽음, 접자 해독력이 높아짐, 집중해서 독서함, 한글 실력이 향상됨, 표현력이 향상됨, 문자의 활용을 비교적 다양하게 함, 언어 활용 순서 정확하게 이야기함, 표현력이 향상됨, 이야기 시작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함		
재미있게 또는 재미없게 읽어주는 선생님을 비교해 이유를 분석하려 함	탐구심 향상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됨,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좋아짐, 잘못된 생활이나 언어 태도를 이야기와 연계해 말함, 비슷한 상황이 직면하면 책 이야기를 생각해 냄	바른 생활 습관	사회성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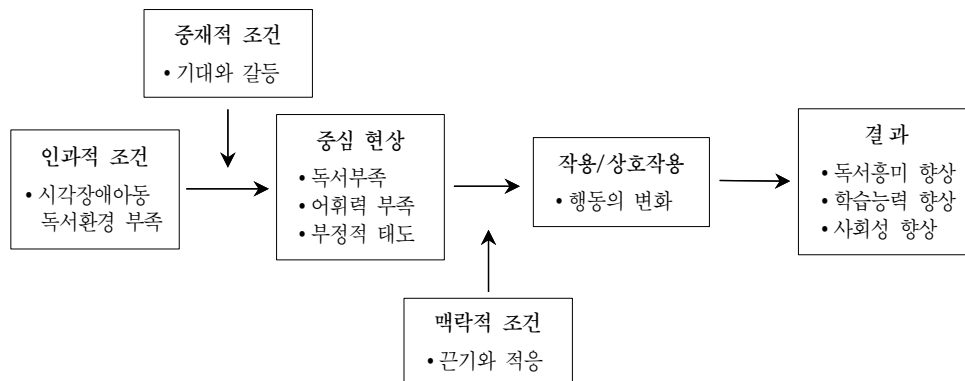
4.2 축코딩

〈표 2〉의 자료를 근거로 축코딩을 하였다. 축코딩에서 범주는 그 하위범주와 연결되어 현상에 대하여 더 자세하고 완벽한 설명을 이루며, 이를 통해 범주들 간의 관계를 밝혀낸다. 그 결과 인과적 조건으로는 시각장애아동 독서환경 부족, 현상으로는 독서부족, 어휘력 부족, 부정적 태도, 중재적 조건으로는 기대와 갈등, 맥락적 조건으로는 끈기와 적응,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는 행동변화, 결과는 독서흥미 향상, 어휘력 향상, 사회성 향상으로 도출되었다.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나 조건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 아동의 독서 흥미 부족과 어휘력 부족, 부정적 태도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시각장애아동의 독서환경 부족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자료가 별로 없다. 학교도서관에는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그림책이 주로 비치되어 있고, 점자라벨이 붙은 그림책이 몇 권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학교나 집 근처의 공공도서관 아동열람실에는 더욱더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도서가 전무하였다.



〈그림 1〉 시각장애아동의 책 읽어주기 활동의 패러다임 모형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한 아동 중 아주 적은 수만이 점자도서관의 책을 대출한 경험이 있었고, 대출은 우편대출을 통해 이루어졌다. 우편대출의 경우 대출과 반납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불편하므로 대출량은 많지 않았다. 또한 어느 공공도서관을 막론하고 비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책 읽어주기 활동과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 모두가 한결같이 공공도서관에서의 장애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집근처 공공도서관에 갔었는데 우리 아이가 읽을 책이 한권도 없었어요.

학교도서관에도 책이 있다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은 얼마 되지 않아요.

공공도서관에 가면 정말 화가 나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우리 아이가 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학교도서관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이 그저 책을 빌려주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 정말 정부가 말로는 장애인을 위한다지만 실제로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 현상

본 연구의 중심현상으로는 시각장애아동의 독서부족, 어휘력 부족, 부정적 태도로 나타났다.

① 독서 흥미 부족

시각장애아동 고학년화를 위한 점자도서는 일부 제작되어 있으나 유아나 저학년 아동을 위

한 촉각도서나 점자도서는 많지 않다. 최근 점자라벨그림책이 개발되어 점자도서관에서 대출해주고 있으나 참여한 대부분의 시각장애아동 가정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어 이용한 적이 없었다. 단지 학교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약간의 점자라벨그림책을 보았을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각장애아동 대부분이 독서는 카세트테이프를 듣거나 어머니가 일반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각장애아동은 독서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었다.

평소 아이의 독서량은 보통이고 주로 카세트테이프를 들었어요. 제(엄마)가 가끔 읽어주는 것을 듣기도 하고요.

② 어휘력 부족

시각장애아동이므로 점자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접 점자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보니 점자 해독이 능숙하지 못해, 점자도서를 접하게 되어도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반면 카세트테이프 독서는 문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읽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지나가버려 책 내용의 의미 파악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간헐적으로 어머니가 읽어주는 경우에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카세트테이프 독서와 같이 일일이 질문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 보다는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시각장애로 사물에 대한 정보 획득이 용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독서량 또한 많지 않으며, 그 의미파악도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각장애아동은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나 상상력이 부족하였다.

아이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 아직 접자를 잘 읽지 못하는데 이런 아이를 위한 책이 거의 없다 보니 간혹 접자책을 접하게 되어도 읽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책을 읽어 주거나 카세트테이프 도서를 들을 때 이해력이 부족해서 조금씩 읽고 이해하고 하지 않으면 전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에요.

③ 부정적 태도

시각장애아동은 자신의 장애로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 환경 속에서는 학교생활 외에 재활교육을 받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고 무엇인가를 스스로 나타내는 것을 주저하며 주위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항상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하였다.

엄마 외의 다른 사람이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학교생활 외에는 가끔 복지관에서 재활 교육 받는 게 전부이다 보니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일이 적어요. 그러다보니 새로운 곳에 가거나 하는 것을 좀 주저하는 편이에요.

우리 아이는 좀 부산한 편이에요.

3) 중재적 조건

인과적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기대와 갈등으로 나타났다.

시각장애아동을 키우는 어머니들은 점자도서관이 독서교육프로그램으로 책 읽어주기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참여하게 되었다. 이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점자도서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학교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책과 다양한 유형의 책 등이 있어서 반갑고 기뻐하였다. 대부분의 아동이 점자도서관을 처음 방문하였고 책 읽어주기 활동에도 처음 참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점자도서관의 위치가 시각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집과 거리가 멀어 오고 가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장시간 차에 탑승하고 있어야 하므로 인해 불편해했다. 도서관의 시설도 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열람실이나 어린이 도서관을 생각하고 방문했으나 실제 도서관의 환경이 열악한데 대하여 크게 실망하였다.

책을 통해서 차분함을 배웠으면 하고, 이해력과 발표력이 부족한데 도서관에 다니면서 나아졌으면 합니다.

언어의 표현력과 독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싶고, 엄마가 읽어주는 것보다 더 실감나게 동화를 들음으로써 아이의 풍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접자책을 자주 접하고 만지면서 책을 좋아하기를 기대하고, 책을 통해 생각이 넓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학교도서관 이외에 점자도서관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번에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오게 되었어요. 오기 전에는

공공도서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서관이니까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추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와 보니까 제대로 된 열람실도 없고 서고 한 쪽 공간 바닥에 카페트를 깔고 아이들을 앉게 하더니 참 실망이 크네요. 책은 학교도서관보다 훨씬 많아 아이들이 많이 만져보고 읽을 수 있어서 좋지만 여기 오는데 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니까 아이도 나도 무척 지치기도 하고...

가능하면 학교나 인근 공공도서관에 이런 책 읽어주기 활동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4) 맥락적 조건

본 연구에서 작용/상호작용을 통해 반응하는 맥락적 조건은 끈기, 적응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선정한 아동은 점자도서관에의 접근성과 시설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이 중에는 점자라벨그림책을 처음 읽는 아동이 많았고, 전에 읽어본 적이 있다 해도 극히 적었던 터라 다양한 책을 만져보고 읽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처음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했을 때에는 책 읽어주는 선생님과 사서 선생님 같은 학교 또래의 친구가 아니라 나이도 다르고 학교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여서 서로서로 말을 하지 않았고, 질문에도 잘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처음 도서관에 왔을 때 도서관이 열악하고 거리가 멀어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셨던 어머님들이 그래도 꾸준히 아동과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처음 점자라벨그림책을 접하는 아동들은

신기하다는 듯이 자꾸 만져보고 읽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돌아갈 때는 많은 책을 빌려가려고 했습니다... 아동들은 쉽게 책 읽어주는 선생님이나 사서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5) 작용/상호작용 전략

본 연구에서 패러다임의 작용/상호작용은 행동의 변화로 나타났다.

책을 읽어주는 활동 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질문을 하곤 하는데 횟수를 거듭함에 점차 질문이 많아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점차 줄어가기 시작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책 읽어주는 선생님과 교감이 통하면서 자신이 모르는 단어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욕구가 높아져 질문이 많아졌으나 일정 시간 이후에 이해력과 어휘력이 증가하면서 질문이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하면서 점자라벨그림책을 통해 점자를 자주 만지게 되면서 잔존시력이 조금 있는 아동은 목자 제목과 점자 제목을 직접 읽으려는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 책도 서가에서 제목을 손끝으로 읽어가며 직접 선택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책 읽어주기 활동이 끝나고 귀가하는 차량 속에서 들은 책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집에 귀가해서 누나나 아빠에게 책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등 들은 책에 대한 내용을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생각날 때마다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아동도 있었다. 책 내용의 마법 주문 같은 것도 실제 마법 주문을 하는 것처럼 즐겁게 친구들과 입으로 외우기도 하였다. 참여한 시각장애 아동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어머니가 가자고 하

니까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점차 책 읽어주기 활동이 있는 토요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기대감에 차 있었다. 점차 시간이 경과하면서 참여한 아동과 어머니는 책 읽어주는 활동이 너무 짧게 느껴졌고 더 자주, 빈번하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책 내용에 대한 흥미도가 높아지면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있으면 질문을 하곤 했는데 책 읽어주는 선생님에 대한 친밀성이 높아지면서 질문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자를 읽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책 읽어주는 활동에 참여하고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점자 라벨그림책을 접하게 되면서 자기가 읽는 책이라고 하면서 자꾸 책을 먼저 읽으려고 합니다.

처음 도서관에 와서는 엄마가 골라주는 책을 책 읽어주기 활동이 시작하기 전 기다리면서 읽는 정도였으나 점차 아동 스스로 서가에서 책을 뽑아 읽으려는 적극성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책에 대한 욕심도 차츰 생겨서 참여한 아동끼리 서로 먼저 선택한 책을 놓고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책을 읽어주셨는데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재미있었던 부분을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이들 몇 명은 차에서부터 즐겁게 대화하고 노래하기도 하며, 마법 주문을 친구들과 같이 소리 지르며 외우기도 합니다. 집에 와서도 책의 내용에 대해 누나와 이야기하고 아빠에게

도 이야기합니다.

두고두고 재미있었던 부분을 이야기하거나 일상에서 비슷한 상황을 접했을 때도 책의 내용을 생각해내고 이야기합니다.

도서관에 가는 날을 기다리고 토요일이 되면 아침부터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1시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하고 더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6) 결과

책 읽어주는 활동이 시각장애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는 독서 흥미 향상, 학습 능력 향상, 사회성 향상으로 나타났다.

① 독서흥미 향상

책을 좋아하게 되어 자주 책을 읽어달라고 하며 독서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 점자라벨그림책도 자주 만지고 스스로 한 글자씩 읽어 나가며 혼자서도 책을 끝까지 읽는 습관이 생겼다.

책을 좋아하게 되어 많이 읽어달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동화를 집중해서 오랫동안 끝까지 읽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② 학습 능력 향상

점자를 자주 접하고 읽다 보니 점자 읽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시각장애아동이 약자를 사용하는 점자를 배웠을 경우 한글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점자라벨그림책의

목자와 점자를 함께 읽으면서 한글 이해력이 높아졌다.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한 책 읽기와 집에서의 책 읽기가 계속되면서 이해력과 어휘력이 향상되어 상황 설명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졌다.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고, 이야기할 때에도 이야기를 순서 있고, 조리 있게 하며, 언어 활용도 다양하게 구사하는 등 표현력이 향상되었다.

책 읽어주기 활동은 책 읽어주는 선생님만이 아니라 참여한 아동의 어머니도 가끔 돌려가며 읽어주기도 하였다. 특별히 다른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모셔 진행한 적도 있었다. 책 읽어주는 방법은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 읽어주는 방법과 기교가 다르다. 참여한 아동들은 재미있게 읽어주는 선생님과 재미없게 읽어주는 선생님을 비교하며 그 이유를 분석하려는 탐구심을 보이기도 하였다.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어휘력이 많이 향상되었고, 문자의 활용을 비교적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언어 활용 순서 또한 정확한 순서로 이야기합니다. 언어 소통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책 제목을 읽고 만지면서 목자와 점자를 알게 되었고, 한글 실력과 어휘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책 읽어주는 선생님을 통해 표현력이 향상되어 집을 느끼며 재미있게 책 읽어주는 선생님과 재미없게 읽어주는 선생님의 비교방법과 이유를 알아내려 애쓰고 있습니다.

③ 사회성 향상

대부분의 참여 아동들은 그동안 가정, 학교, 복지관 외의 다른 환경에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고, 또 같은 나이 또래 친구들과만 어울려 왔었다. 이번 책 읽어주기 활동은 7세가 평균적으로 많았지만 5세에서 10세까지 폭 넓은 연령대가 함께 참여하였고 서울맹학교, 한빛맹학교 두 학교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그러므로 연령대도 다르고 학교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어 이를 통해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낯설음도 줄어들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책 읽어주기 활동에서 읽는 책 내용을 통해 잘못된 생활 습관이나 언어 태도를 이야기와 연계해서 스스로 깨우치기도 하였다.

잘못된 생활태도나 언어를 표현할 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바로 지적하지 않고 책 속의 주인공 이야기를 통해 이해를 도우니 보다 더 좋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이해력이 좋아졌습니다.

4.3 선택 코딩

핵심범주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핵심범주를 다른 범주에 체계적으로 연관시키고 그들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더욱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범주를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범주들이 통합되며 하나의 이론이 구축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범주는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한 시각장애아동의 변화”였고, 이 핵심범주를 중심으로 범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시각장애아동의 독서환경이 부족하여 독서에 대한 흥미가 부족하고, 어휘력과 이해력이 부족하였으며, 부정적 태도를 보이게 되었으나 책 읽어주기 활동에 끈기 있게 참여함으로써 시각장애아동의 행동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독서 흥미가 향상되고, 어휘력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학습능력이 향상되었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이론적 개요는 시각장애아동의 독서 흥미와 어휘력, 사회성 등은 그들을 위한 자료의 유무와 도서관에서의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 책 읽어주기 활동은 시각장애아동의 독서 흥미와, 총체적인 학습능력, 사회성을 향상시켰다.

5. 결론

책 읽어주기 활동이 시각장애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책 읽어주기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탐색적인 질적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책 읽어주기 활동을 통해 시각장애아동의 독서 흥미와 학습 능력, 사회성 향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시각장애아동의 독서 환경 부족이 인과적 조건으로 독서 흥미 부족, 어휘력 부족, 부정적 태도 등이 중심 현상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는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자료나 독서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하며,

점자도서관도 자료가 부족하고, 우편대출에 걸리는 소요시간이 길어 독서환경의 저해요소가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아동은 이런 열악한 독서환경으로 인하여 대부분 독서 흥미가 낮고, 카세트테이프 도서로 독서를 하고 있으며 이해력이나, 발표력, 표현력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 조건은 기대와 갈등으로 점자도서관을 알게 되고, 많은 기대를 갖고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하였다. 맥락적 조건은 점자도서관의 시설과 접근성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참여하고 적응해 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작용/상호작용전략은 질문이 늘어나고, 직접 서가에서 책을 고르기도 하고 책 읽어주기 활동이 있는 토요일을 기다리는 등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행동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책 읽어주기 활동의 결과로는 독서량이 증가하였고, 이해력과, 표현력, 어휘력이 향상되었으며, 책 읽어주기 선생님들의 차이점을 비교하려는 탐구심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책 내용을 통해서, 책 읽어주기 활동에 참여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바른 생활태도 습관을 갖는 사회성도 향상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책 읽어주기 활동이 시각장애아동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리고 점자도서관 등에서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책 읽어주기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기를 바라며, 이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 김은희. 1997. 점독행동형식에 따른 맹학생의 읽기 속도 비교 연구. 『시각장애연구』, 1: 103-117
- 박갑수 외. 2000. 『국어표현·이해교육』. 서울: 집문당.
- 박경호. 1998. 『책 읽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 능력 및 책에 대한 흥미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마산.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원미사.
- 박순희. 2005. 『시각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 백금남, 서현아, 임안수, 현은자. 2000. 시각장애 유아의 그림책 개발을 위한 부모와 교사의 요구도 조사. 『특수교육연구』, 35(3): 373-402.
- 서순영, 조경숙. 소리내어 읽어주기 활동이 초등 영어 읽기 흥미 및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Primary English Education』, 7(2): 223-243.
- 송서영. 2004. 『책 읽어주기 활동이 읽기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송은경. 2005). 『소리내어 읽어주기 활동이 아동의 언어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육근해. 2004. 『점자도서관의 이용과 서비스 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성균관대학교.
- 이상급, 장영희. 1996. 『유아문학론』. 서울: 교문사.
- 이연섭. 1987. 우리나라 아동의 쓰기 발달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소논문집』, 4: 19-30.
- 이은현, 송영숙, 전미선, 오가실, 이원희, 이영희. 2004. 암 환자 삶의 질에 대한 근거이론적 접근. 『중앙간호학회지』, 4(1): 71-81.
- 조미경. 2003. 『시각장애유아의 독서지도 실태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주경일, 최홍석, 홍성만. 2003. 사회적갈등의 근거이론적 이해 -담 건설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7(4): 169-191.
- Goodman, Y. M. 1984. "The Development of Initial Literacy." In Goelman, H., Oberg, A. & Smith, F.(ed). *Awakening to Literacy*. London : Heinemann Educational Books.
- Strauss, A. & Corbin, J. 2001.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단계(신경림 역)』. 서울 : 현문사.
- Trelease, Jim. 1995). *The Read-Aloud Handbook*. New York : Penguin Books.
- Warren, D. H. 1994). *Blindness in children: An individual differences approac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